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8.28.(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먼저, 이번 주 주요일정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을 논의하는 2023년 제3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통일부는 8월 30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3 한반도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는데 그에 대한 배경이 뭔지 통일부 차원의 평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입국 허용 시기는 또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이 3년 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북 국경 봉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사적인 교류 문제가,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서 또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국경 개방을 일단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8월 27일에 중통 보도에 따르면 '해외 체류 주민의 귀국을 승인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이고 있고,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래서 개방은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아무튼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 송환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인권단체들에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관계부처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통일부는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이것을 차단, 의지에 반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의사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